

## 무안군, '대규모 조직개편'에 내부 불만 목소리 높다

1년 만에 기획실 4급 격상에 일부 직렬들 불멘소리

업무 포화 보건소 개편은 '외면'...의회서 진통 예고

무안군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실 4급 승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

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중순 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과

예산, 감사,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과(5급)를 기획실(4급)로 격상이다.

복지문화국에 있던 세무회계과는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고 경제건설국 산하의 산림공원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해 국별로 6개 과를 두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팀과 정신건강팀, 스포츠마케팅팀, 의회 의정팀을 신설

하고 현재 무안, 일로, 망운에 설치돼 있는 권역형 맞춤형복지팀을 내년부터 6곳에 추가로 설치해 전 읍면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조직개편 당시 4급의 문화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이 신설되면서 기획예산실이 4급에서 5급으로 변경됐으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4급으로 기획실이 승격되면서 일부 직렬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특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는 불멘소리로 터져 나온다.

여기에 무안 인구의 40%를 차지

하는 남악 지역의 보건직렬 부서 확충이 필요한데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외면됐다는 지적이다.

인구 3만3000명의 남악 신도시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내 보건직원 3명만이 업무를 맡고 있어 정신치매팀과 보건팀 등의 신설과 함께 과(5급) 격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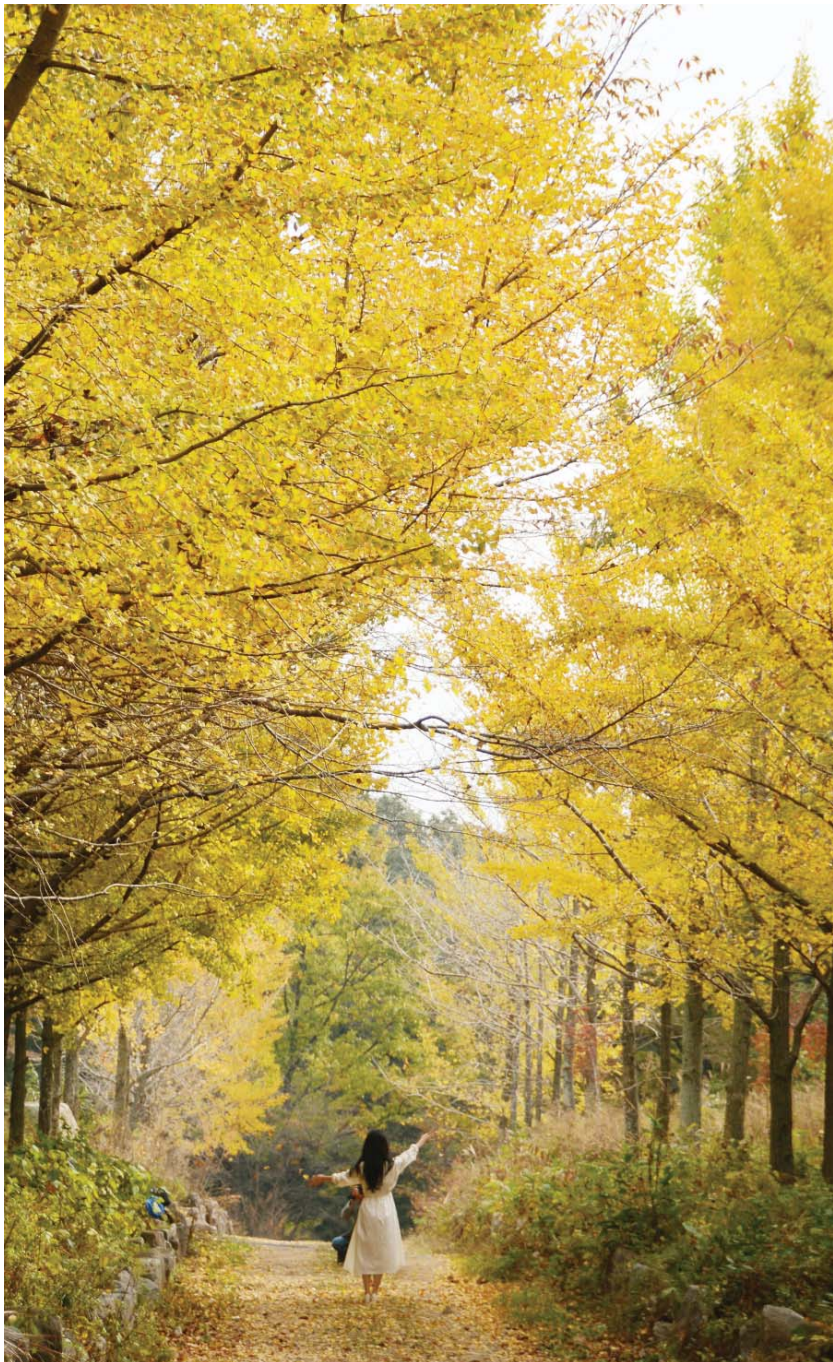
김대현 무안군의원은 "이번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의회와 상의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기획실장을 다시 4급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회 논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지

난 4월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도 국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국설치에 따른 대규모 개편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기획실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직렬 직원들의 불만은 알고 있으나, 보건소장이 5급인 상태에서 5급 과를 신설할 수는 없다"며 "향후 삼향읍 분리여부, 오룡지구 개발추진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가을이 내려앉은 담양은행나무숲길

겨울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 지난 15일, 담양 수북면 병풍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한 국제청소년교육재단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등산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3분기 연속 전남 인구 유출 지속...20대 전출 가장 많아

호남통계청, 지역경제동향...순유입 50대 303명 최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전남지역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층의 전출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3분

기 전남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3492명 순유출을 보였다.

20대가 2539명 빠져나갔고 10대 494명, 10세 미만이 372명 순유출됐다. 반면 순유입 인구는 50

대가 303명, 60대가 279명이었다.

시군별로는 영암군(458명)과 순천시(451명) 등은 순유입했으나, 목포시(-728명), 광양시(-700명), 여수시(-671명) 등의 순유출이 심각했다. 올 들어 전남지역 인구 순이동자수는 1분기 -7335명, 2분기 -2464명, 3분기 -3492명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전남과 광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3분기 인구이동 역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588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호남권 인구 순유출은 20대(-4699명), 10대(-986명), 30대(-772명) 순이었으며, 순유입인구는 60대(392명), 50대(360명), 40대(41명) 순이다.

호남권 인구이동은 2016년 1분기 이후 순유출이 지속됐으며, 특히 20대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 전남 일선 학교는 교감도 없는데...교육청과전 교사 '수두룩'

전남지역 상당수 학교가 교감 부재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거나 파견중인 장학관·장학사, 교사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42.9%인 377개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감이 미배치된 작은학교는 초등 33개교, 중등 105개교, 고

교사들의 업무가중은 물론 수업의 질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출산을 저하에 따른 도내 학생 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작은 학교와 교감 부재학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행정업무는 일정규모 학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 교감의 업무가 교사나 교장에게 넘어오면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와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감 미배치 학교 140곳, 업무가중·수업 질 저하

전남교육청·직속기관, 장학관·장학사·교사 200명

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19일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에 따르면 도내 87개 초·중·고교 가운데

등 2개교 등 모두 140개 학교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학교에서 교감 부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선



또한 "교감 부재로 인해 작은 학교의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본청에 근무하는 장학사, 장학관은 100여 명이고 직속기관에 파견되는 교사도 100명이 넘는다고"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대책이 담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성은 기자

##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 2020 보성울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2020. 1. 1.